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지도록 기도하자”

교계 지도자들,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기도 요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교계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기도할 것을 한국교회에 요청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현 시국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좋다”며 “신앙의 자유의 전제는 자유민주주의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 권순용 목사는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한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에 민족과 사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또 장로교회의 가치관으로 볼 때 삼권분립에 의한 민주주의가 잘 진행되어야 한다. 행정 입법 사법부의 독재로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 칼빈주의에 따르면, 적절한 균형이 민주주의에서 핵심 가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존중하고 소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자유민주주의를 세워갈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소위 오징어게임의 나라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다. 즉 상생이 아닌 ‘나는 살고, 너는 죽는다’는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바른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아니라고 했다.

권 목사는 “지금 이 시국에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빛은 선지자적 역할로 성경의 바른 가치관과 방향, 비전을 제시하는 것, 소금은 제사장 역할로 갈등과 편가르기로 상처받은 대한민국에 치유와 회복을 건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성규 전 총신대 총장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50년 동안 복음에서 멀어진 결

과”라며 “교회 강단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사는 설교만 했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설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목회 강단에서부터 확실히 아모스와 하박국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고 했다.

송실대 명예교수 김영한 박사는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몰아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생태계 복원이나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을 삭감시킨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지나쳤다고 본다. 그러나 헌법상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계엄을 6시간 내로 해제했기에 내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정 안정화를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 혐의로 몰아가선 안 되고, 현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교회는 사회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 사회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선의의 파란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들이 먼저 공의와 정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교회 강단이 정부 관료나 재판관 등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영역주권의 원리에 따라 헌법과 양심에 기초해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 결국 신

앙의 자유를 보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원성용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전 감독)는 “처음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정치적으로 인내하면서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등을 미뤄보건대 그의 계엄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 등 의회 독재와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려고 한 것이었기에, 내란이 아닌 헌법상 비상권 행사로 본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뤄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성령과 성결의 사람’ 웨슬리 닮아 세상 밝히자”



2024 웨슬리언교회지도자 송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2024 웨슬리언교회지도자 송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2024 웨슬리언교회지도자 송년회 열려

한국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양기성 목사, 이하 웨협)가 17일 오후 서울 CCMM빌딩에서 리바이벌 웨슬리의 성령운동이라는 주제로 2024 웨슬리언교회지도자 송년회를 개최했다.

존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을 계승하는 국내 교단들의 연합체인 웨협에는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구세군, 대한기독교사서렛성결교회(나성),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가 참여하고 있다.

김철한 감독(8대 대표회장, 오목천교회 원로)이 사회를 본 이날 송년회 예배에선 먼저 직전 대표회장인 박동찬 목사(일산 광림교회 담임)가 개회를 전했다. 박 목사는 “올 한해도 다사다난 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며 “웨슬리 후예로서 힘을 합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의 찬송과 나세웅 목사(10대 대표회장, 예성 전 총회장)의 기도, 박철우 사관(학술공동회장, 구세군대학원대 총장)의 성경봉독, 위두함장단의 찬양 후 원팔연 목사(7대 대표회장, 기성 전 총회장)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5-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원 목사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여기에 베드로가 응답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은 특별히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항상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할 말씀일 것”이라며 “누구에게 주의 사랑이 주어졌나.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진다”고 했다.

원 목사는 그는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기 전 주님을 부인했었다. 그러나 이후 주님을 다시 만나고 사랑을 고백한 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사랑과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후 이영훈 목사(11대 대표회장, 기하성 대표총회장)와 주삼식 박사(12대 대표회장, 성결대 전 총장)가 차례로 축사했다. 먼저 영상 축사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지난 1년 동안 삶의 여러 현장에서 사랑을 묵묵히 감당해오신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며 “세상 곳곳에 어둠과 혼돈이 가득하다. 이번 송년회를 통해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주삼식 박사는 축사에서 “한해의 끝이

졸으면 올해가 다 좋게 마무리 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며 “우리 모두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자”고 전했다.

이어 양기성 박사(대표회장, 정주신학교 명예학장)가 인사한 뒤 내빈을 소개했다. 양 박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다. 웨슬리도 이 말씀에 따라 질투같이 어둠과 혼란했던 시대에, 성령에 힘입어 성결의 사람이 되려고 했다”며 “우리가 웨슬리처럼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나라도 밝아질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그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송년회 예배는 이선목 목사(부회장, 송의감리교회 담임)의 광고, 위두함장단의 합창, 주삼식 목사(9대 대표회장, 기성 전 총회장)의 축도로 모두 마무리됐다.

김진영 기자

“기장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길은 ‘퀴어 신학’의 퇴출”

내년 1월 7일 2월 11일, 김지연 대표·김성환 목사 초청 동성애 동성혼 반대 세미나 열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사·장로들이 결성한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장환 목사)는 제4차 세미나 및 기도회를 내년 1월 7일 오후 2시 30분 목포남부교회(한승강 목사 사무)에서 제5차 세미나 및 기도회를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 평안하고등근교회(오종설 목사 사무)에서 개최한다.

단체는 “한국교회에서 유일하게 퀴어 신학을 옹호하고 가르치는 교단은 안타깝게도 기장밖에 없다. 따라서 기장 교단은 동성애와 LGBTQ를 조장하는 퀴어 신학을 교단 신학교에서 속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장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으로 낙인 이 찍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에서 퇴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장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동 위원회의 활동으로 제7문서에 ‘성차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수 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총회에서 원안대로 결정했다더라면 공식적인 동성애 지지 교단이 될 뻔했다”고 했다.

특히 “동성애·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가 이끌어온 ‘동성애·동성혼 반대 서명 운동’ 동참자는 9월 24일 기준으로 기

장 소속 목사 307명, 장로 817명 등 총 1124명이 서명에 참여했다”며 “서명자 명단을 제109회 총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총회는 ‘동성애·동성혼을 반대한다는 선언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사·장로들이 결성한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는 커다란 실망과 분노의 표시로 1,000명 서명운동을 발전시켜 2,000명 서명운동으로 확대했다”며 “총회 차원에서 퀴어 신학 주석서를 번역한 이영미 교목실장이 사퇴하고, 퀴어 신학이 교단 신학교에서 퇴출될 때까지 동성애·동성혼 반대를 펼쳐나가는 길만이 기장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동성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 “국난 극복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하자” >> 2면

복음주의선교신학회 “한국선교 연합일치 촉구” >> 3면

사라 멘처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 >> 22면

금정역 복합환승센터(예정),
45층 1,072세대 랜드마크 프리미엄!

금정역, 큰 변화의 시작!

대우건설 | 서해중합건설

안양천 힐링라이프, GTX-C 금정역 복합환승센터(예정),
인덕원~동탄선 호계역(예정)의 미래비전까지
푸르지오그랑블에서 모두 누립니다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59㎡ Type 분양마감!!
76㎡ Type 마감임박!!

계약금 5%로 입주시까지

PRUGIO Grand Bleu

총 1,072세대 59㎡ / 76㎡ / 84㎡ / 95㎡ 지하 2층 ~ 지상 45층 8개동 | 시영주택 | 무로원주택 | 서해중합건설 | 대우건설

1599-9399

*부차: 경기도 군포읍 146-7(지)근로면(마을)가 91(복합) 일원 ※ 본 홍보물에 사진(CD, 이미지)은 소비자 이해를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개발계획은 관련 기관 사업추진 과정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시행 및 시공에는 무관합니다.(개발계획 2024년 05월 24일자 기준)